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출

# 東友會報

1989年(檀紀 4322年) 10月 31日 第142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대)  
733-3991, 3992, 3993

우편번호 01232-31-0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東國人のばん

“12월 12일에 만납시다.”

금년도 「제18회 東國人のばん」이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암배서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향각지에서 활동중인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동국인 모두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이 행사에는 지난 한해 동안 사회 각계에서 활동을 펼친 이로써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祝贺賓을 겸해 동국인의 긍지와 대동단결을 기약하는 자리이다. 전체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동국발전을 다짐하는 「제18회 東國인의 밤」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함)

## 15대 會長團 選任마쳐

各界지도급 동문 망라……활성화 기대

본회 第15代會長團이 확정돼 지난 10월 17일 상견례를 겸한 회장단회의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회장단 프로필 3면>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15대 會長團은 부회장 25명 (해외부회장 1명 포함)과 감사 3명으로 선임됐고, 앞으로 總同窓會의 운영과 각종 사업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각期別 및 기여도, 사회적 역량 등을 반영하여 선임작업을 끝마친 이번 會長團은 동창회의 활성화와 오래 속원사업 중의 하나인 동창회관 건립사업, 모교발전 후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회장단에는 80년대 총동창회를 이끌어온 鄭在哲 회장을 위시하여 지난 76년부터 부회장으로 현신해온 文泰植 수석부회장, 원로선배로서 많은 기여를 해온 朴辰熙 金聖涉부회장, 東女會 회장인 安채란부회장이 지난 14년에 이어 계속 중임을 맡았다.

이와 함께 본회와 모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일해온 金東正 柳周馨 鄭寬容 樂魯甲 鄭相永 金東英 朴完一 朴峻亨 尹鎰均부회장들은 각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며 동국발전에 힘써온 친숙한 얼굴이다.

15代 會長團에 위촉된 신임 부회장에는 黃龍雲 許文秀 宋寶烈부회장이 금융계, 南平祐 金鎔善 李世茂 李和一부회장이 제재, 朴翊柱 金榮龜 李起彬부회장이 정계, 현역 경찰계 최

고선배인 李鍾國부회장이 각각 영입됐다. 또 이번 회장단에는 참여도가 확대된 해외지부 동창회를 대표하여 李敏輝부회장이 해외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15대 감사에는 金在基감사가 새로 영입됐고 李喆鎬 南基一감사는 14년에 이어 연임됐다.

그간 본회와 모교의 여러 사정에 의해 선임이 늦어졌던 15대 회장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제 본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회장단은 오는 총회에서 추대될 예정이다.

## 동국발전 후원회

本會서 창립준비중

본회와 모교는 최근 모교발전에 관해 뜻을 같이하고 동문들이 주축이 된 「동국발전후원회」(가칭)를 창립하기로 대체적인 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 후원회는 다가오는 동국대학교 90주년 및 1백주년을 바라보며 모교발전의 새로운 계기와 동국 중흥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구성될 예정이며, 총동창회의 임원진과 각급부·支會동창회, 해외동창회, 지장별東友會의 임원 및 각계각층의 유력동문들을 포함하는 범동국인의 후원단체로 발족될 계획이다.

## 83년 東國人脈을 정리한 「東國人名錄」이 곧 발간됩니다

1908~1989 전졸업생현황계재……「東國人のばん」서 배포

1908년 明進學校 졸업생부터 최근 1989년 졸업생에 이르는 83년 동국역사가 배출한 8만여 동문들의 현황을 담은 「東國人名錄」이 완간을 앞두고 있다.

명실상부한 東國人脈의 산기록인 「東國人名錄」은 1년에 걸친 명부작성과 현주소·직장 파악을 마치고 6개월여의 발간작업 끝에 오는 12월 동국인의 밤에 시 동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발간 될 「동국인명록」 제6집은 출판직후 전체 동물현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향후 동문관리 및 본회와 모교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히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최종 원고수정 및 기타 보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11월초까지 본회로 통보해 주면 교정이 가능하며, 「동국인의 밤」에서 배포한 후 이책자는 일반동문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 同志會운영에 參與절실

## 을해 會費납부실적부진…사업재원 확보곤란

금년 들어 본회는 동문들의 회비납부 실적이 부진해 각종사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학생들이 납부하던 동창회비제도가 없어집에 따라 예산상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총동창회는 동문과 단위 東友會의 보다 석학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80여년 전통의 그 많은 영광을 누려온 우리 東國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그저 한 때의 駭龍으로 변명하고 말 것인가』『『과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설 주인은 누구인가』『투철한 愛校心으로 「나의 東國」에 뛰어든 동문이 있었던가』

本會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이 많은 「東國人の 소리」를 모를리 없고, 사실 수 많은 동문들이 개인하고 自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올때마다 본회 사무국은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추진 과정에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재원의 부족에서 해법워야 하는 실

정이다.

사업재원의 근본은 두말할것 없이 동문한 사람 한사람이 보내주는 회비.

그간 본회는 「동창회 기금확보의 해」 캠페인과 방문수납제 운영등 재원확보에 여러 방안을 시험해온바 있지만 회비납부제도의 정착은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실제로 「東友會報」를 통한 회비독려를 해도 참여도는 밟행부수의 30%를 밟고 있는 협회이고 보면 본회운영의 애로점은 이루 말할수없는 협회이다.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東友會報」의 제작 우수, 사무국 운영, 모교후원, 경조사참여, 東國의 밥들 각종 사업주진이 힘겨운 실정이고, 장학사업과 회관건립등은 요원한 현실이다.

동문각자의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보교에 가 발휘돼 「내손으로 나의 東國을 이끌어간다」는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문과 단위동우회의 동참을 기대한다.

명동을 통해 오랫동안에 동문간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同會는 이날 총회에서 이사에 정점택(66경체)동문, 간사에 전석환(80월학)동문을 주가보선 임했다.

이어 열린 기조연설 야유희에서는 그림파티, 배구대회, 여흥등이 있으며 빙고게임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신임회원소개, 각지역 동문근활설

친목을 다졌다.

박경구 회장을 비롯해 이재일 전임회장등 15명의 동문과 기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신임회원소개, 각지역 동문근활설

친목을 다졌다.

박경구 회장을 비롯해 이재일 전임회장등 15명의 동문과 기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신임회원소개, 각지역 동문근활설

## 각급단위 東友會 창립 잇따라 예천지회·우성그룹동우회등 4개支會

### <예천군 동문회>

경북 예천군동문회(회장=박연·60임학·예천군청농산과장)는 지난 7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부회장에 활평순(60생물·예천여고)동문, 총무에 김상일(87농학·예천농촌지도소)동문, 감사에 권상국(73경제·신라원예식장대표)동문들을 선출했다.

예천군동문회는 20여명의 동문을 중심으로 조직돼 지난 9월 8일 첫월례회를 예스터데이(77경체)동문, 부회장에 문원식(77경체)갈대룡(77경체)윤관용(77화공)동문들을 선출하고 전역10주년기념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협의했다.

同會는 1백 25명의 임관자중 현자 90명의 동기생들을 규합해 활동하고 있다.

<우성그룹 동우회>

우성그룹 東友會가 지난 5월 40여동문을 규합해 정식

발족됐다.

同會는 소내회집에 나님보(79경제·우성건설)회장과 함께 회비와 세프란 치스코부지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달았다.

<ROTC 15期會>

ROTC 15期동기회가 지난 7월 8일 밝혔다.

15期 동기회원 6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회장에 오성고(77세교)동문, 부회장에 문원식(77경체)갈대룡(77경체)윤관용(77화공)동문들을 선출하고 전역10주년기념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협의했다.

同會는 1백 25명의 임관자중 현자 90명의 동기생들을 규합해 활동하고 있다.

<65정외과 동창회>

65정외과동창회가 정식 발족돼 회장을 박효원동문을 선출하고 앞으로 동문구립운동과 장학기금 마련에 힘써나가기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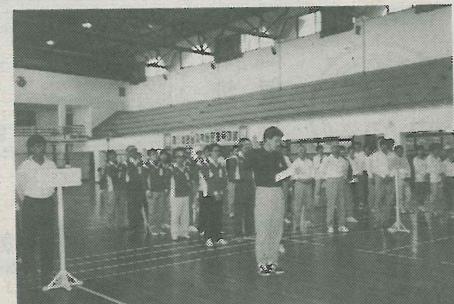
同會의 부회장에는 김원규 백남길 밤영선 동문, 감사에는 김종오 총무에는 김재주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샌프란시스코 支部>

본회hq문하고 회비전달

美산프란시스코支부동창회 韓陽洙회장은 지난 25일 고국방문길에 본회를 방문하여 북가주 동문들의 근황을 전하고 단체회비(미화300\$)를 납부했다.

이날 본회에서는 샌프란시스



## 영남·충남지역 체육대회

### 地域同門모여 친목도모

영남지역과 충남지역 동문들

이모여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동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려 지역동문간의 친목도모와 동창회의 발전을 다짐했다.

제 6회 영

**[嶺南체육대회]** 남지역 동문

체육대회가 포

항시지회(회장=金鳳熙) 주최로 지난 10월 8일 오전 10시 경주김포체육관에서 열렸다.

충남지역 대전·서산·아산·온양동창회들 각지부동우회에서 1백 40여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피구등 각종 경기를 하며 충남지역 동우가의 우의를 다했다.

지했다.

대회 후 열린 만찬회에서 영남지역동창회는 모교 재학생들에게 추억기념과 행사용 대형천막 2개등을 기증했으며, 경주김포에서 추진중인 백상건립운동에 영남지역 각동창회가 적극 후원로기로 결의했다.

충남대전지

**[忠南체육대회]** 부(회장=金基植)에서 주

최한 제 6회 충남지역 동국인 체육대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대전고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충남지역 대전·서산·아산·온양동창회들 각지부동우회에서 1백 40여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피구등 각종 경기를 하며 충남지역 동우가의 우의를 다했다.

울산지부 정기총회

회장에 유병령 동문 선출

울산·울주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울산그랜드호텔 대연회실에서 1백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수재(66경체)준비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경과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유병령(63농학·원예조합장)

▲부회장=최명호(66경체·난도포트선대리장), 이덕호(74농경·동양증권지점장)

▲감사=이부원(62농학·반구동동장), 서병수(71행정·도교경수캡퍼스 판매주무)

한편 同會는 10월 중으로 고별 및 이사선임을 마칠 계획으로 있다.

연락처 : 울산 71-0999.

**光州支部**

동문부부 단체관광

매월 7일 정기월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해오고 있는 光州支部동창회는 회장=崔聖鏗· 관주 교육대학장은 지난 7월 16~17일간 동문부부 40여명이 홍도를 단체관광하며 우의를 다졌다.

同會는 동문 상호간 친목을 위해 단체관광을 위한 기금을 적립해 동문가족이 참여하는 단체관광을 실시해왔다.

연락처 : 光州 71-0999.

**江陵지회·嶺東동우회 상봉**

江陵東友會(회장=鄭義昆·강릉고교장)과 새경 嶺東東友會(회장=金炳潤·한국산업교육연구원장)간의 상봉 행사가 지난 6월 10~11일 한일간에 걸쳐 강릉시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지역 13명의 동문과 강릉지역 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상봉 행사는 鄭時浩동문의 부친 고희연 축하를 비롯해 관광과 단란모임등을 통해 同鄉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번 상봉행사는 강릉의 金光湖, 시울 崔昌淳진사와 張



敏洙부부의 수고로 성시였으며, 이 행사에 위해 李範高(李富得) 李錫龍(李錫龍)과 동문들의 특별찬조가 있었고 趙炳默(임학·강원대학교수)동문은 귀로에 참석자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해 훗못한 회제가 되기도 했다.

FODE동문회 장학금전달

政外科동창회도 재학생 5명에 지급

FODE동문회 장학금전달식이 지난 9월 5일 정오 차운(68경체)회장, 金一濬(68경체)부회장, 金一濬(68경체)부회장, 金一濬(68경체)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학장이 실에서 있었다.

同會에서는 매기기당 60만원의 장학금을 모교생에게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번 장학금수혜자는 장태수(68경체), 김훈(68경체)3명이다. 그들은 2명으로 각 30만원씩을 수여받았다.

한편 정치외교과동창회(회장=朴朝柱)는 지난 8월 신학

## 東國發展의 견인차로 활약

鄭在哲 총동창회장



49년 廉門部 文學部 및 52년 政治學科 졸업. 언론계, 학계, 금융계, 정치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본회를 이끌어온 東國發展의 견인차로 현재 민주정의당 속초·고성지구당 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다.

62년 보사부 공보과으로官界에 복당 은이래 전재명 차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산업은행 부총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일은행장,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감판 등을 역임. 81년 본회 제11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동문간의 유대 강화와 동창회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노력하였다.

## 副會長

동창회발전의 일등공신

文泰植 수석부회장



49년 惠忠學科 졸업. 76년 이래 7대째 부회장으로 일해온 동창회 발전의 일등공신. 71년 창립한 축구부 후원회 발기인과 「70周年 장학금」부이사장으로 모교발전에도 참여. 아주파이프(주) 창립대표이사, 양산고압콘크리트(주) 창립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주산업(주) 회장과 아주파이프(주) 회장을 겸임.

支部 활성화에 공헌

朴辰熙 부회장



52년 經濟科 졸업. 81년 본회에 상무이사로 참여한 후 조직담당부회장을 맡아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헌했으며 대구지부회장, 고문으로 대구조직활동협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조직 담당부회장을 담당. 한국서유럽회 회장, 경북도자문위원, 대한러비트볼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농협(株) 회장.

맡보다는 실천앞서

金聖涉 부회장



53년 政治學科 졸업. 지난 78년부터 본회 회장으로 활동해오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愛東國主義者. 신일기업(주) 부사장, 한국유리창업(주) 이사, 비영남유(주) 회장, 대한모방(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동개발(주) 회장을 맡고 있다.

女性同門위해 저극활동

安채란 부회장



54년 國文學科 졸업. 학교법인 영석한글학교 설립,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86년 모교에서 교육학박사, 미국 드론스테이드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서중·고교 교장.

리더쉽 갖춘 금융계 중진

黃龍雲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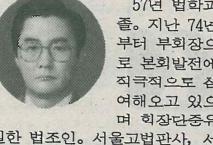


54년 경제학과 졸업. 금융계의 중심으로 활동하며 본회 상무이사와 경제과 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일은행 상무이사, 부산은

행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세련된 매너와 미남형의 전문경영인으로 리더쉽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모교발전 앞장선 法曹人

金東正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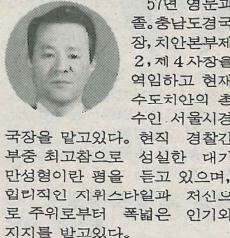
57년 법학과 졸업. 지난 74년부터 부회장으로 본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장단장으로 재임중.

일한 법조인. 서울고법판사, 서

을 맡았으며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생간의 교류역할을 해왔다.現在 忠清副續(주)부회장.

합리적인 首都治安총수

李鍾國 부회장



57년 영문과 졸업. 충남도경국장, 치안본부제2, 제4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도지방의 총수인 서울시경 국장을 맡고 있다. 현직 경찰간부 중에서 최고참으로 성실한 대기 단성형이라 평을 듣고 있으며, 일리적인 지휘스타일과 저신으로 주위로부터 폭넓은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장관역임한 정통관료

鄭寔寬 부회장



58년 法學科 졸업. 총무처 종무·인사·행정 관리국장, 충암공무원 교육원 부원장, 국보위 사무처장, 선관위사무처장, 청와대 사전조사서비서관을 역임하고 대체로 현직장으로 재임중.

(주)봉명회장, 성균관대학교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혼례부회장, 본회상무이사로 그동안 동문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현재 동창신업(주) 회장.

重量感 있는 4選議員  
金東英 부회장

60년 政治科 졸업. 43회국회의원(경남거창)으로 당당한 체구와 설득력 강한 언변을 갖춘重量感 있는 정치인. 각별한 東國發展의 지도로 본회 부회장과 국회동우회 회장을 맡아왔다. 新民黨 상무차장, 원내총무, 민주당 부총재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자 民主黨 상무총장으로 활동중.

オ랜동안 본회임원맡아  
金鎗善 부회장

60년 經濟科 졸업. 대구 백양 업지공업사 대표, 경기도 직불협회 이사장 등 역임. 그동안 본회 상무지도위원회 등으로 활동중.

화에 힘쓰고 있다.

후배에 관심 큰 企業人

朴坡亭 부회장



63년 經濟科 졸업. 면화 직물 공업(주) 대표 이사, 신라금속(주) 대표이사, 반성연맹이사, 신탁운 회장 비상이사 등을 역임하며 진흥층 호신용고교를 설립하기도. 東友 강화회를 설립해 모교의 강화 학생에서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현재 新羅交易(주) 대표이사.

소문난 우수기업경영인

李和一 부회장



65년 商學科 졸업. 동일상역(주) 대표이사, 삼화화성(주) 전무이사 등을 역임. 현재 朝鮮耐火化學工業(주) 대표이사로 활동중인데 지난 「제23회 조세의날」에서 우수 법인으로 철강산업훈장을 받기도. 그동안 본회 상무이사로 활동하였다.

將星출신, 行院동창회장

尹鎭均 부회장



69년 行政大學生院 졸업. 공군준장 예선원, 서울신문 전무, 정보부장직무부대행, 국제공항 관리공단이사장 역임. 현재 행정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지난 78년 모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學院원. 현재 한부개발(주) 고문. <당연직>

초선의원, 銀院동창회장

李起彬 부회장



70년 경연대 학원 졸업. 지난 4·26총선에 북제주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중소기업 경영자 회장으로 활동중.

&lt;당연직&gt;

在美 을림피후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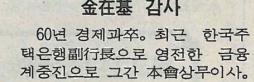
李敏輝 해외부회장



56년 政治科 졸업. 모교재학 시 총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LA 한인회장, 재미체육회 명예회장, 보희L.A지부회장을 역임. 재미동포 을림피후원회장으로 큰 활약을 해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았다.

監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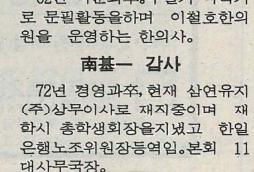
金在基 감사



60년 경제과 졸업. 최근 한국주택은행 부행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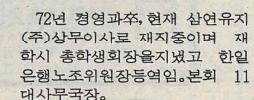
62년 국문과 졸업. 수필가 극작가로 문필활동을 하며 이월호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李詒鎬 감사



62년 경제과 졸업. 재지중이자 재화인유지(주) 상무이사로 재화인유지 및 한일은행노조 위원장 등 역임. 본회 11대 회장.

南基一 감사



72년 경영과 졸업. 삼연유지(주) 상무이사로 재임하면서 재화인유지 및 한일은행노조 위원장 등 역임. 본회 11대 회장.

## 本會 제15대 會長團 프로필

政界의 막후 실력자

權魯甲 부회장



58년 경제과 졸업. 72년에 이래 수차례 투옥되었는데 지난 한반도 한민족을 하다가 난 4·26총선 때 평양에서 출마해 금배지를 땄다. 평민당 출마비서실장, 정치담당 특별보좌역을 맡아왔으며 결혼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위의 호평이 자자하다. 현재 국회국민권익감사, 平民黨 소속이다.

운수업으로 自手成家

南平祐 부회장



59년 경제과 졸업. 모교를 졸업한 후 30여년 간 수원에 살며 운수업에 종사, 自手成家로 경남여객대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수원상공회의소 상임위원, 경기도정 자문위원, 경인루보이사, 민정당 수원구당위원장 등 폭넓은 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목받는 財界의 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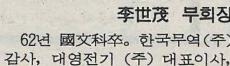
鄭相永 부회장



59년 法學科 졸업. 현대건설(주) 상무, 현대지동차(주) 부사장을 역임한 우리나라財界的 주목받는企業人. 그동안 본회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을 맡으며 많은 공헌을 해왔다. 현재 (주) 금강, 고려화학(주) 회장.

동문사회서 大量활동

季世茂 부회장



62년 國文學科 졸업. 한국무역(주) 감사, 대영전기(주) 대표이사, 대사관에서 동문유대감



## &lt;여기화재보험&gt;

## ◇부 장

▲신홍철(68상학)▲원장연(71상학)▲김정철(74행정)

## ◇과 장

▲이영진(72상학)▲이재선(78국교)▲김영수(79경영)▲김광학(81통계)▲진기현(81정의)▲유진봉(82도시)

## ◇대 티

▲김창제(82통계)▲임병희(83수학)

▲이종표(83법학)▲이동현(83시교)▲이재철(83수학)▲노학천(84무역)

## ◇사 원

▲이영신(84경제)▲한호(84행정)▲이종강(84무역)▲김동원(85법학)▲장관현(85행정)▲신현달(87무역)▲천성복(87회계)▲허기수(88경영)▲주윤환(88행정)▲김종식(88경제)▲임성태(88경영)

▲金容聖(63점자·본회이사·사진)=이화은 행 삼성동지점장으로 전보.  
69년 外銀에 입사, 싱사 1부차장, 正農物產부사장, 광화문, 휘경동 논현동지점장 역임  
▲李景一(63점자·본회이사)=신용보증기금인사부·연수원 교수로 역임. 농협중앙회 및 식탁은행 근무, 신용보증기금 진주, 대전지점장 역임  
▲張都松(85경원·본회이사)=조종은행 연지동 지점장으로 전보. 영업부 차장, 반도, 청파, 잠실지점장 역임, 현재 세계여행은행협회 이사.

▲文炳皓(72정의)=중일일보 심의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영전  
▲金鍾旭(58경제)=KBS 제작국 전문위원으로 영전(부국장급)

▲林永大(64민학)=KBS 기조실 인력관리담당부부장으로 영전  
▲李繩學(60정치)=충청실업전문대학 학장으로 활약중  
▲唐鎮元(72경영)=서울종합인쇄(주), 月刊『음식과衛生』 이사에 선임  
▲李忠教(67경영)=안양소재 대한신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 취임

▲田晶鎔(78行政)=대한석유개발공사 경영자료실장으로 영전

▲崔相哲(71 경영)=기아산업총무이사로 활동중

▲李鍾萬(53경제)·대한투자금융사장)=최근 창립된 한국신용평가 이사로 선임

▲申榮業(67물리)=최근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취임

▲趙炳仁(81경영)=최근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에 선임 (575-5285)

▲金熙和(60설계)=최근 충남 온양시 온천동조사 제일관판호팀 대표이사에 취임·온양(44) 6111

▲金昌永(62국문)=최근 불교방송국 총무국장에 선임(719)24 61

▲李瑞衍(71철학)=최근 성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장으로 영진

▲宋智植(62경제)=동아생명경원판단장으로 영전

▲金萬律(61법학)=KOTRA 중소기업지원부부장으로 영전

▲宋秉浩(79경원·신진철강(주) 대표·본회이사)=9월 1일 오후 3시 美에월드에식장에서 차녀 蔡煥英 화족

▲成洛雄(64법학·성복경찰서 경무과)=9월 23일 오후 1시여전도경찰서 장관 춤연군 결혼

▲韓萬洙(84국문·경향신문기자·前 본회총무)=9월 23일 동국대학교에식장 결혼

▲崔在熙(80경원·오영기임대표·본회이사)=지난 23일 오후 1시 대극당에식당 5층 결혼

▲李泳和(54법학·본회이사)=지난 28일 오후 2시 석산동 석당서 장녀 화족

▲河鍾大(59정치·국립식물검역소·수원출장소장)=9월 30일 오후 2시 목화에식장에서 장남 韓範正 결혼

▲徐廷柱(35중불·시인)=4개월여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최근 귀국

▲宋錫錦(62철학·묘교교수·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국제학제화학 세미나에 참석

▲林英正(65사학·묘교교수)=특별기금에 의한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선정돼 5개월 예정으로 일본 경도대에서 연구하기 위해 출국

▲黃勝敏(상학·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장)=23일 브라질에서 열린 16차 중소기업 국제회의에 참석증 상임운영위원회로 피선

▲黃明秀(53정치·민주당 부총재·본회지도위원회)=소련 과학아카데미 초청으로 모스크바·사할린등을 방문하고 귀국

▲金善午(64정치·묘교교수·학생처장)=지난 28일까지 중국 북경비의 상해대에서 열린 제3세계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국

▲**中庚林** 東文

하는 충남 한산에 안치됐나?

▲金世華(52정치·前朝国증권부장)=別世=지난 14일 오전 9시20분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 APT 자택에서 발인。

▲安澈允(52경제·동아생명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빙모상=시난부 30일 삼오 9시 우이동 보광사에서 발인。

▲盧在德(83국교·경향신문 기자)부친상=지난 28일 하우 5시20분 東江東省모병원. 발인 30일 삼오 10시

▲朴榮愛(묘교미술과강사)=부친상=28일 석관구 성수동 자택서. 발인은 30일 삼오 10시.

▲張榮遇(84국문)부친상=발인은 8월 10일 남서울병원 영인실서.

▲정한민(69동학·본회이사)노진상=8월 17일 10시 서산시 동문동 자택서 발인。

刊「나리」를 복간하고 날행인으로 취임했다. 한편 시사월간지 「다리」는 17여년만에 극단을 배격하는 종합대중지로 선보였는데 창간 초판이 매진되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朴稚福(60정치·한국환경신문발행인)=최근 月刊 「국의 저널」을 창간. 연락처 (703)0167

▲李仁禎(72상학·주) 대표이사·본회이사)=최근(주) 대인 신축공장을 충북 청주시에 완공, 본사 및 공장을 이전. 연락처 철주 (65)4222, (274)4080 (274) 7214.

▲朴瑞浩(70행정·묘교교수)

=교육전문지인週刊 「국민교육신문」을 창간. 연락처 (417)80 58

▲**申庚正** (83사학·유니컴 대표)=최근 경제교양지 「카드라이프」를 창간. 연락처 중구서동 2가 철종 B/D 4층 (274)4080 (274) 7214.

▲朴瑞浩(70행정·묘교교수)

=교육전문지인週刊 「국민교육신문」을 창간. 연락처 (417)80 58

외세, 민민등의 주제를 담은 「水河期」「거부반응」 등 7편을 수록했다. <東亞刊>

## [정보사회학 특강]

## 金光永 등문

외교안보 연구원에 재직중인 金光永(66월학)동문의 「정보사회학 특강」은 정보화의 사회적 요소를

분석 활용문제를 제시한 저작. 정보의 개념, 활용방법, 경제, 변증법과의 상관관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집대성했다.

<명문화사사刊>

## [한국의 불상]

## 黃壽永 前총장

前교총장인 黃壽永博士가 오랜 불상연구의 결과를 정리 「한국의 불상」을 펴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불상들이자료사진과 함께 집대성돼 있다. <문예사刊>

## [늑대를 기다립니다]

## 申相星 등문

중건 소설가 中相星(70국문·체육과학대학교수)동문이 두번째 창작집 「늑대를 기다립니다」를 펴냈다.

첫번째 창작집 「발간 이후에」는 이루어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인문지리학, 국토발전의 외경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한글사刊>

## [元曉聖師의 철학세계]

## 金知見 동문

金知見(60불교·강릉대 교수)

동문이 원효로를 주제로 열린 두학자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완 「원효선사의 철학세계」를 펴냈다. 이책은 원효의 생애와 사상적 위치, 교학사상, 국제적위상 등 5부분으로 구성됐다.

<정신문화연구원刊>

## [黃土]「太白山脈 8.9.10」

## 趙廷來 동문

대하소설 「太

白山脈」의 작가 趙廷來(66국문)동문이 同

소설의 8, 9, 10권 설립을 완료, 10월 5일 출

간했다. 「太白山脈」은 해방직후

부터 6·25동 민족의 치열한

역사상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

다. 한편 「黃土」는 趙廷來의 10년 20여년간 추구해온 분단,

그후 70년대 초반의 암울한 사회를 배경으로 쓰고 있으며 광주일기로 연세증 중간 당하기도 했다.

「영웅의 나라」는 李東文의 최근작을 모은 것으로 분단이 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파행적 모습이 그의 탄탄한 소설구조속에 수용돼 있다. <東亞刊>

## [사랑을 찾기 위하여]

## 朴柱官 등문

5월詩동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朴柱官(81국문·무등일보 정치부차장)동문의 세번째 시집 「사랑을 찾기 위하여」가 나왔다. <학민사刊>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화

TEL : 266-4571  
야간 : 602-40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 회비... 1년에 1만원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여러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 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전산화를 통한 동문 조직 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同門여러 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自立運營의 키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회費 낭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 회비내역

- 一般會員... 1만원
- 理事會會員... 5만원
- 常務理事... 10만원
- 단체회비... 50만원대로
- 해외동포회비... \$ 20
- 監委... 20만원
- 指導委員...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 회부내역

- ① 은행지로 이용(7500891)
- ② 전화주시면 빙준수납

# 이사장職代에 朴玄惺동문

## 도교 次期총장선출방안은 계속논의중

학교법인 東國學院 이사회는 문교부의 黄彰經이사장 승인취소에 따라 지난 24일 밀석증인 이사장자리에 朴玄惺(75학원·도선사주지·재단이사)동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 9월31일 도교부 정부입학사관과 관련 李智冠총장, 黄彰經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이 구속된데 따른 것으로 李총장도 보석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일기와 일마 남지 않고, 곧 입시업무가 시작되자 때문에 직무를 세속해야 한다는 주위 여론에 따라 총장직을 세속 수령증이다.

한편 후임총장선출과 관련 총장선출방안에 대한 학내 각단체의 의견개진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경주 전체교수회 비상총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총장후보 인준규정에 관한 논의」를 주요안건으로 1백 93명의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L301)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교수회 金鎭翰(철학과) 회장은 비상총회 소집에 관해 「李智冠총장이 빨리 총장

후보자를 뽑아줄 것을 당부해 오늘 충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는데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성규총학생회장, 김윤길지원노조부위원장등이 나와 「학내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적 총장선출방식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날 충회에서 교수들은 교수부의원회에 대표권을 부여해 좀더 논의를 거치기로 하고 내사태와 관련 종단 및 재단에 재단기능정상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공동대책위원회」

#### 財團혁신위한 6개합동체

도교부 정부입학사관이 후 동국의 자금부활을 위해 총학생회, 직원노조, 대학원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재단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단이사진의 전원퇴진△ 새로운 이사진은 진학이념구현과 학교 재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원칙에 일각하여 구성△ 새로운 이사진구성을 위해 종점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법

어사 30만원등 종단분규로 앓았던 재단의 재산을 즉각 되찾을 것△현재의 공대위를 기초로 「재단혁신협회」의 (기정)△구성△학생·동문·직원 등 모든 학교주체가 참여하는 범동학모금운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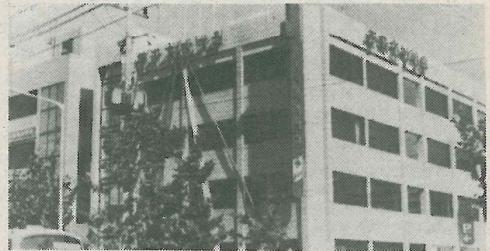
### 경주 교수회장에

#### 裴相賢 교수 선출

경주캠퍼스 제 2 대 교수회장에裴相賢(한문과) 교수가 지난 6월 7일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됐다.

무작위표방식을 통해 선출된裴교수는 「전동국인이 순수이성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동국발전을 위해 해내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9년 8월 12일 서울시



##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 開院

### 방배동에 한방내과동 6개진료과 설치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이 지난 17일 오전 11시 방배동병원에서 李智冠교수(한문과) 교수를 내외국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동국한방병원은 지난 87년 한의과대학에서 부속한방병원의 서울병원을 퇴함함에 따라, 88년 9월 정부의 정관개정 승인을 받은 후, 88년 2월 공사허가를 받아 8월에 개수공사를 준 공했다.

구모는 일원실 10실에 38병상

로부터 한방 종합병원으로서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지난 17일 개원하게 됐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질신과, 침구과 등이며, 개설된 운영련자는 동국여경사업진흥회로 본교와 의료진 지원, 출생수련병원으로 역할을 하게된다.

구모는 일원실 10실에 38병상으로 대지 1백 50평에 건평 3백 74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이다.

## 회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指導委員會費

▲총지침(52점치)=20

▲김준운(53점제)=''

### ◇常務管理費

▲최춘기(57법학)=20

▲장장순(65법학)=''

▲이화일(57경제)=''

▲송보열(65상학)=''

▲신국주(48불교)=''

▲양정오(81행원)=''

▲한영희(61경제)=''

▲안현원(52경제)=''

### ◇理掌會費

▲박익주(61정치)=5

▲유현록(49문학)=''

▲김영현(58정의)=''

▲박종관(59경제)=''

▲구재태(67경영)=''

▲박준의(61법학)=''

▲김정원(83사회)=''

▲유여상(75화학)=''

▲김교근(65경영)=10

▲김월환(58법학)=5

▲박창호(66경정)=''

▲김효삼(64법학)=''

▲조종학(65경제)=''

▲김재홍(60경제)=''

▲전유구(57영문)=''

▲이종국(57영문)=''

▲정현숙(66상학)=''

▲홍사현(63사학)=''

▲정태수(73행원)=''

▲신현조(84교원)=''

▲안국승(60경제)=20

▲이상운(60정치)=''

▲김병만(62국문)=''

▲정병립(84행원)=''

▲홍우동(83경원)=''

▲민경봉(67미술)=''

▲김동길(67대체)=''

▲이태영(56사학)=''

▲전진표(57동학)=''

▲문규택(63경학)=''

▲이형탁(85경원)=''

▲백문기(63법학)=''

▲작위상(67대체)=''

▲이인정(72학학)=''

▲안기성(73경행)=''

▲박삼람(69상학)=''

▲구재태(67경행)=''

▲경기용(62정치)=''

▲박선영(65불교)=''

▲오지운(61법학)=''

▲송상현(57수학)=''

▲김철기(78경원)=''

▲장도송(84경원)=''

▲오국근(58영문)=''

▲김성수(68경학)=''

▲박영상(79경원)=''

▲김승우(67정치)=''

▲김창환(76경영)=''

▲이윤수(72경제)=''

▲이재곤(68경제)=''

▲김태동(81원원)=''

▲박영환(49문학)=''

▲김윤종(73정의)=''

▲이한우(85교원)=''

▲이상률(57법학)=''

▲남성호(83영문)=''

▲김진식(58경제)=''

▲정경철(80경원)=''

▲이한우(85교원)=''

▲박상기(79전자)=''

▲조지환(58경학)=''

▲남성호(86영문)=''

▲김현수(86영문)=''

▲이현우(61경학)=''

▲김현우(61경학)=''

▲이현우(61경학)=''

▲이현우(61경학)=''

△부기회(50분학)=''

△宋東虎(63정치)=''

△홍옹기(77전기)=''

△박상기(79전자)=''

△조지환(58경학)=''

△남성호(83영문)=''

△김현수(86영문)=''

△임정인(77원전)=''

△송영환(76시공)=''

△이정민(73국문)=''

△이정민(73경학)=''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 魚允沼論文

지난 3월 경제기획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을 설립한 魚允沼(72경제·본회理事)동문。

7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교 경영관리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해 친숙한 얼굴의 魚동문은 모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경제관련 연구원을 창설, 의무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듯이 기업 역시 건강진단』을 통해 지속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지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여 한기업이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동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소개다.

이외에도 이 연구원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政策研究, 原價計算 및 공사비 산정,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調査研究, 사원교육훈련 및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간 연구원이 실시해온 활동은 「기업의 혁신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 첫시리즈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1~20개 부문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두번째 시리즈로 조직구성원의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세번째로 효율적人事管理를 위한人性·適性조사 실시등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에

방의학적인 경영지도」를 받은 2백30여개 업체에서는 그동안 한진의 노사분규도 없었다는게 이 연구원의 사람이나 魚동문의 긍지라고. 이를 되고보니 魚동문이 알기쉽게 소개해준 「기업의 건강진단」이란 말이 피부에 닿는다.

『15년 정도의 경험과 학문적지식을 토대로 전문연구진들과 함께 국가경제와 산업사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



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魚동문은 현재 연구원장이란 직책 말고도 면지내출강과 경영학박사과정공부에 눈고를 새가 없을 정도. 8순 노모를 극진히 모시고 있어 효자로도 알려진 魚동문. 그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취미로 삼고 있듯이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 충실히 「반려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영석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373-5 동우빌딩 전화: 338-2211~3

있는 「東友會報」가 제작여건상 어려움으로 둘째 여려분을 뒤늦게 찾아보게 됨을 사과드리며 본보발행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두동문 장학금 지급

▲ 평소 사회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金潤閑(67대원·前 경기 대총장)동문과 金慧法(73행식·신동수·주지)동문이 각각 전국의 중고생 2백여명과 모교 승가대학생 86명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위사람들을 환호하게 해주었다고. 두 동문의 보살행에 박수를 보낸다.

『會報발행이 늦어졌습니다』

▲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 宋堯仁 교수님을 哀悼함

許天澤(61영문) 교수

1959년 가을학기 어느날, 지금의 석조관 복도에서 막 강의를 듣고 나온던 차이였어요. 당시 교수님은 6·25전쟁으로, 뒤늦게 만학의 꿈을 키우는 학생이었지요. 문장교(外語)의 신분으로 함락열에 불타던 교수님과의 만남도 이전 영원히 둘러킬 수 없는 30년전의 추억이 되고 딛았습니다.

바쁜 군부중에도 고박 고박 학교에 나오시든 대학시절의 교수님의 모습, 단단한 몸매에, 비범한 재능과, 예지가 넘치는 20대후반의 때기에 산 교수님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렁한 목소리, 속사포처럼 터져나온 달변, 그 뛰어난 어학능력, 때로는 전통이 정확하고 신속하여 매정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지만 그 묵고 따뜻한 마음 이제 사 알수 있읍니다.

1950년 조국이 백색간부로 처했던 격동기에, 교수님은 학문의 꿈을 키웠고 모교 동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꾸어 오셨습니다. 61년 5·16군사혁명으로,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식되면서, 세속적인 출세의 기회도 미だ하고, 교수님은

내외에 물을 털으셨습니다. 교수님! 1962년, 동국대학의 외국어 교육원을 비롯 당시이 산부인 부속기관입니다. 아직도 시청각교육의 불모지였던 대학에 교육원의 개원과 함께 간사직을 맡아 시청각교육의 시원을 이룩하셨으며, 내외 언론의 정필을 자랑하는 Don.



▲故宋堯仁 교수

gguk Post 역시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수님! Longfellow는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인간의 비극적 숙命을 노래했지만 아! 이 어인 일입니다.

수년 지별로 고생은 하셨지만… 당신의 폐기애에 찬 모

습을 어디서 빼울 수 있단 말입니다? 송박사님만은 불사의 언론을 쌓아가기리라 믿었습니다. 수차 입원하시면서 계시면서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고통과 고독을 감내하신 교수님! 결국 1년의 특별년기를 받고서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교수님은 가셨습니다!

1969년 혼자 Hawaii대학에 유학하시면서 시집, 서둘에 있었던 귀여운 파님이 시체한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셨다지요. 미국에서 몰아올때, 공항까지 배웅나온 어느 미국인 친구가 준 몇 송이 꽃을, 서둘에 도착하면 김포공항에 미처나를 큰파님에게 주려고 소중히 들고 왔지만, 파님은 보이지 않고… 이미 유령을 달리한 파님의 소식을 뒤늦게 알고서 그날 저녁밥상 앞에서 부부가 함께 읊었다는 지난했던 젊은시절의 슬픈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파님이 바로 잊어버린 큰파님 대신 얻은 파님이 말씀하셨지요.

송박사님, 사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하는 아들 무식과 파님, 수많은 제자들, 당신이 이착하든 동국을 두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인연이 다하여, 죽음이 큰급 그어드립니다. 해도, 교수님이 남긴 뜻, 기리기 기리 모두의 가슴으로 안아키워겠습니다.

교수님 부디 이 풍진세상, 모두 잊으시고, 원생극락하소서.

동창회비마저 없어진 지금, 예전처럼 많은 지원을 못해주는 담당자는 아만 짚이고 있다는 얘긴데, 글제「받는」 생각에 앞서 「주는」 동국가족 이해하지 않으면 까 하는 생각입니다.

### 「東國人名錄」발간 임박

○… 지난 초여름부터 「東國人名錄」제작에 힘들려온 사무국 편집팀들은 이제 마지막 작업에 한창입니다.



동국국대동창회활동위원회

혹스러운것은 예산의 빈곤때문이라고.

동문들의 회비실적이 밀바닥을 풀고 출입생들이 내던

### 「東國人名錄」완간에 성원과 관심을

美L.A支部 주소록보내와

▲…美ロス앤젤레스지부(회장=박광범)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국제예경동문을 통해 현지에서 활동중인 90여동문들의 주소록을 전해왔다.

『會報발행이 늦어졌습니다』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대우자동차(株)

###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인페리얼 (3,000cc) 계약개시  
로얄시리즈 (로얄프린스·듀크)  
월드카르망 (GSE·옵티마·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鉉石 (74년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882-3 영신빌딩 1층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924-6662, 924-6363

### 全國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品 (86 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理事
- 東城區公認仲介士會會長

전화: (사) 234-4777, 238-9321~2 (Fax)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정문앞)

■ 西独 보쉬純正品

연료節減  
엔진 출력증가/수명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기아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포터서비스 244-0997

###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점외)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 洪性裕 人生劇場

# 將軍의 아들

\* 전6권 출판!  
총 170화면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역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將軍의 아들〉!  
특별적인 화제 속에 전6권 완刊!

홍성유 인생극장〈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학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홍미  
진작하게 펼쳐나가는 시사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  
은 박자강 넘치는 사건전개, 격렬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어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기 호데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수구계의 황제로 등극, 110여의 무리를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人漢으로, 꽉박\_be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기물로 격승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 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成 가 아시적으로  
새로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억한  
인생무대로 조대한다. 첫 폐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 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역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을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고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  
들이 이땅을 강탈한 일본 이구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악록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푸른  
서리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단 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 전6권·국판·각권 300만내외/각권 갚 3,300원 \* 별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